

# 집 늘리고 복지 늘리고

### 구미 금오종합복지관 500평 규모 본관 신축 장애인·지역민 위한 편의시설 대폭 강화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이 본관 신축을 기념해 11월 13일부터 먹거리 마당을 개설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축제를 개최했다.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주지 법등)이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한 본관 신축공사가 10월 말 마무리 돼 운영규모가 배가됐기 때문이다. 금오종합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 3층의 500여 평 규모의 본관을 새로 신축했다.

하루 동안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민은 3000여명이 넘는다. 지금까지 500평 남짓한 한정된 공간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연꽃어린이집, 금오치매어르신 주간보호센터, 확대아동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기초푸드뱅크, 금오농촌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의 다양한 부설 기관을 운영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로 증축된 본관 건물은 최신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스템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복지관이 갖춰야 할 부대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본관1층은 별관 1층에 있던 연꽃어린이집을 옮겨와 장애 비장애 아동을 통합 수용하는 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대가

실에서만 상담실과 치료실을 볼 수 있는 특수거울(one way mirror)이 설치된 2층에는 가족상담실의 기능을 강화해 장애아와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애아발달지원센터가 들어오고, 최신 컴퓨터 시설을 확충해 기존에 실시해 오던 주민정보화교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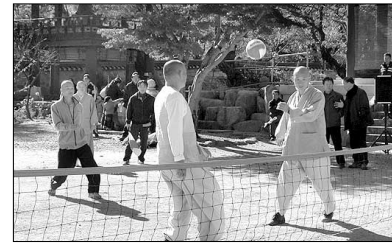
또, 최첨단 방송 프로젝션시스템을 갖춘 강당은 주민들을 위해 대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예정이다. 별관 1층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하고, 2층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실로, 지하는 치매어르신주간보호기관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획을 계획하고 있다.

관장 법등 스님은 "처음 복지사업을 맡아 시작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세로 새 출발 하겠다"며 "주부와 아동들이 참가할 수 있는 사회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뿐 아니라 일반 지역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금오종합복지관은 본관 신축을 기념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역사회복지축제를 개최했다. '자비' '희망' '참여' 구호를 내걸고 5일간 별인 지역사회복지축제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게 매일 테마를 정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는 종합적인 복지행사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jsun@buddhanews.com

### 은해사 주지배 축구대회



"리시브~, 360도 회전 퐁팅 스파이크 대단합니다."

11월 12일 은해사에서는 은해사 주지배 축구대회가 열렸다.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다지기위해 은해사가 산문을 연 지 올해 3년째, 이번 대회에는 은해사 스님 팀을 비롯해 영천시청, 청풍농민회, 청풍면사무소, 청풍마을방범대, 지역산악체인 보성공단 금호농협 등 23개 팀이 출전해 경내 곳곳에 마련된 3개의 특별경기장에서 하루 중 일 열면 경쟁을 펼쳤다(사진).

우승은 보성공단 B팀이 차지했고, 영천시청과 청풍농민회가 각각 준우승과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은해사는 이날 청풍면내 결식아동 후원금으로 150만원을 기탁해 더욱 뜻 깊은 대회가 됐다. 배지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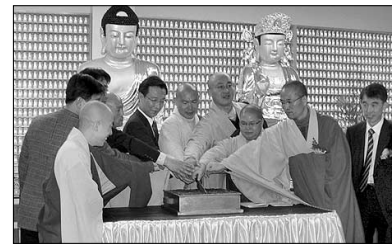
### 장애인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이 11월 21일 불국사문화회관 3층 대강당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지역 장애인과 장애인고용을 희망하는 지역 사업주와의 상호 만남의 장인 '경주시 장애인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직업재활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직업재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구직유망가 있는 모든 장애인들은 이력서와 복지카드를 지참하면 참여할 수 있다.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만남의 장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의지를 고취시키고, 장애인 고용 촉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54)776-7522

배지선 기자

### 영남불교대 중 청따오에 도량 개원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해)가 11월 12일 중국 청따오에 10만명의 교민들을 위한 도량을 개원했다(사진).

이날 미국뉴욕에서 온 두 번째 해외진출로 영남불교대학은 "전 세계에 천개의 분원을 건립해 온 세상에 정토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불교 세계화의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회주 우해 스님과 김상길 동문신도회장 등 40여

명의 대구 큰절 신도, 주청도 대한민국 김선홍 총영사와 300여명의 교민들이 동참했으며, 우해 스님은 이 자리에서 불자들과 함께 "수행의 묘미, 불사의 묘미, 인생의 묘미, 진리의 묘미를 분명히 터득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청따오 분원(주지 지범)은 법당과 종무소, 서점 등을 갖추고 화상강의 위주로 현지 교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게 된다. 배지선 기자

### 대구경북포교사단 영불포교팀 상주 호암사서 경로잔치 열어

대구경북포교사단 영불포교팀(팀장 김웅기)은 11월 11일 12명의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상주 호암사(주지 현종)를 방문해 겨울 웰빙비와 간식비로 80여 만 원의 기탁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벌였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는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포교사단 박정수 부단장과 영불포교팀 김웅기 팀장을 비롯한 포교사 20여명과 대구만평종풍등제가 동참했다.

처음에는 약 20여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버린 지금은 12명의 아이들이 남아있고, 현종 스님은 최근 인근 논에 연을 재배해 연차를 만들어 수익금으로 어려운 재정을 메꾸고 있다.

지역 젊은이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주 이안면 지산리 호암사에서는 이날 지역 어르신들이 호암사 아이들과 흥겨운 풍물공연을 보며 모처럼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배지선 기자

### 대구 불광사 불광불교대학 만불보전 대법당 낙성식



대구 대명동 불광사 불광불교대학(학장 사오)이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1000평 규모의 만불보전 대법당을 건립하고 11월 11일 낙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과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광성문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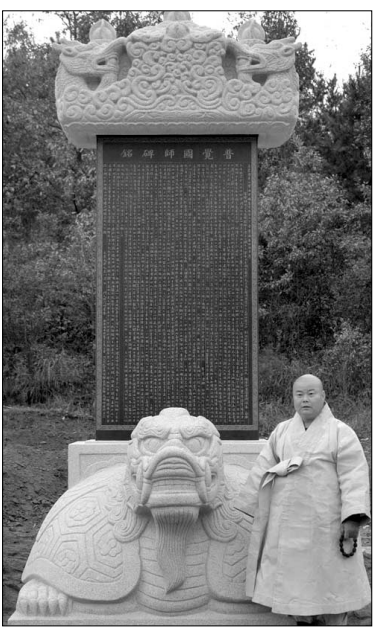
오후 1시부터는 영국의 유명한 기타리스트 크리스그레필드와 예술국악관련 악단 등이 출연하는 격조 높은 축하마당 잔치를 벌였다. 배지선 기자

###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사 : (054)634-3429

# 일연 스님 '생애' 4050자 비문에...

### 인각사, 보각국사碑 복원 24일 제막식



일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보각국사비'가 복원돼 군위 인각사에 세워졌다. 비 앞에 선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

<삼국유사>를 전승해 민족문화의 터전을 이룩한 보각국사 일연(1206~1289) 스님의 행적이 상세히 기록된 '보각국사비(보물 제428호)'가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을 맞아 복원돼 인각사(주지 상인)에 세워졌다.

인각사는 11월 24일 오전 11시 법주사 조실 혜정 스님과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문화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봉행할 계획이다.

보각국사비는 일연 선사 생애를 기리기 위해 1295년 고려 충렬왕 21년에 왕명으로 인각사에 세워졌다. 높이 180cm, 폭105cm의 점판암으로 세워진 비석은 문인 죽려 스님이 일연 스님의 높은 덕을 찬양하기 위해 글씨의 성인이라 일컫는 왕희지의 자취를 집자해 새긴 명작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현재 인각사에는 높이 80cm 두께 15cm의 조각난 비석 일부만 전하고

있다. 글자 또한 전체글자의 1/10정도만 현존한다. 이는 왕희지의 글씨를 집자해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왕희지체를 연구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무절제한 탁본을 했기 때문에 마멸되기 시작했다는 것.

특히 보각국사비는 왕희지 집자비 중 명작으로 중국에서까지 탁본을 해 갈 정도로 유명했으며, 임진왜란 때는 왜구들

### 귀부·머릿돌 고려시대 문양 고증 거쳐

### 박영돈·김상현·정병삼 등 학자 대거 참여

이 불을 피워놓았던 뜨거운 땅바닥에 비석을 넘어뜨린 채 탁본을 하는 통에 비석이 조각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형태도 알아보기 못할 정도로 훼손된 보각국사비는 비문 복원에 평생을 바친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새모습 재현했다.

특히 왕희지체의 보각국사비 복원을 위해 40여 년간 탁본과 고서를 수집하며 왕희지 글씨를 집자해 재현해 놓은 재야 서지학자 박영돈 선생의 노력이 보각국

사비 복원에 큰 바탕이 됐다. 여기에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정병삼 교수와 부산대 사학과 채상식 교수 등국대 사학과 김상현 교수의 연구가 더해져 24종의 탁본을 모은 비첩(碑帖)이 중앙승가대에서 간행되고, 여러 인연이 모여 보각국사비를 재현하게 됐다.

비록 비는 대부분 파손됐지만 오대산 월정사의 해월 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보각국사비 사본과 탁본 20여종이 전하고 있었다. 이중 일연선사의 행적이 담긴 비의 앞면 양기 부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전제내용이 수록된 게 전하고 있어 문제가 없었지만 비의 건립 내력과 문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비의 뒷면 음기를 복원하는 데는 난

해한 점이 많았는데, 채상식 교수의 역할이 컸다. 채 교수가 2004년 4월 보각국사비문 내용을 모양과 함께 판독 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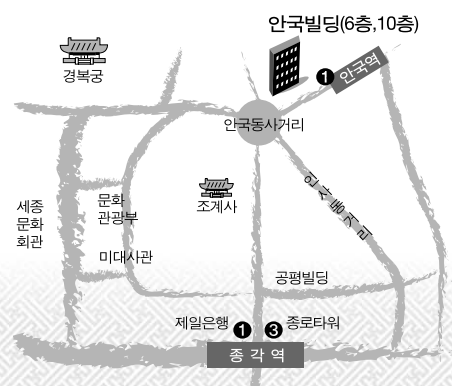
패 실려 있는 자료를 중국 상하이 도서관에서 복사해 음으로써 원형에 가까운 음기의 복원이 이뤄질 수 있었다. 4050자에 달하는 비문이 완성되고 보각국사비의 재현은 2004년 4월 일연선사비 재현자문위가 구성되고, 2005년 5월 재현제작자문위가 다시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배지선 기자

# 11월 11일 현대불교가 안국동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기존의 청운동 사옥은 연수원 전용으로 사용하고 신문 제작 등 제반업무는 종로구 안국동 새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 새 주소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 편집국·광고영업국 6층, 관리부 10층

● 전화와 팩스번호는 기존 그대로이며 대표전화는 (02)2004-8200



#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편자요법 건강 공개강좌

귀의상부하오고, 발달편자요법은 불자인 문광 이홍재박사가 발명한 획기적인 새로운 의술로 침이나 뜸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편자를 붙여 이루어진 통증도 없이 경락을 조절하여 질병을 다스려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뛰어나며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어 대단히 편리합니다. 산사에서는 도시의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전문인에게 치료받기도 쉽지 않아 아파도 참거나 방치해 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노 보살님들은 늘 몸 여기 저기 아프기 마련인데 스님이나 법사님 보살님 들이 편자요법을 배우신다면 통증이 전혀 없이 동료 스님은 물론이고 나이 많은 신도들부터 아이들 까지 모든 환자의 고통을 보살펴 주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편자요법을 발명한 문광 이홍재박사가 직접 강의하는 공개강좌와 본 강좌를 마련하오니 환자시술과 의술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
- 공개강좌일시 : 2006년 11월 23일(목) 오전 10 - 12시, 오후 1시 - 3시(2차례)
- 본 강좌일시 : 200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1개월
  - 오전반 :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2시간) 매주 수, 목, 금 주 3일
  - 오후반 : 매일 오전 1시부터 3시(2시간) 매주 수, 목, 금 주 3일
- 수 강 료 : 공개강좌 무료
- 1개월 전 과정 : 30만원(교재 10만원상당제공) ※ 본 강좌 수료지는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문 의 전 화 : 011-9765-6999
- 편자요법으로 치료 절되는 증상 : 전두통, 편두통, 후두통, 갑기기침, 콧물, 코피, 경항통, 어깨결림, 담갈림, 등줄기결림, 건통(오심건), 팔목아픔, 손목아픔, 손가락관절통, 요통, 환도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발목염좌, 눈 피로, 감상선염, 심통, 협심증, 고혈압, 당뇨, 소화불량, 속취, 간장질환, 생리통, 생리불순, 멀미,
-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 버스 7016, 1711 경기상교 앞 하차 도보 5분 ※ 자가용 20대 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장 문광 이홍재 합장